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7호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홍세나 전화/920-5159

<4월 12일,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상건례 확정>

2016 중노위 합의사항 이행! 적폐청산! 노사관계 개선위한 산별현장교섭 START!

2017년 4월 12일, 오후 1시 30분

2017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의 포문을 열다!

우리지부는 지난 3월 17일에 열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16 임단협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안암병원 로비사태를 주도한 책임자 처벌 및 고대의료원 적폐청산을 위해 집행부의 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조기 교섭을 요청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지부는 의료원에 3월 20일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료원으로부터 4월 12일 산별현장교섭 상건례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접수받았다. 드디어 2017 산별현장교섭의 포문이 열린 것이다.

2016년 중노위 합의사항 이행! 임금 7.4% 인상.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교섭!

고대의료원 교섭은 작수 해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홀수 해에는 임금교섭(임협)으로 진행된다. 우리지부는 임금7.4%인상을 비롯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부서 간담회를 통해 접수받은 요구들을 취합하여 교섭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협미이행 사항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매 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합의 사항 미이행 및 정·명퇴 사직자 리 미충원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실로 오랜만의 교섭해태 없는 2017년이다. 매해 의료원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교섭을 해태하고 우리지부는 교섭성사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부의 교섭요청을 회피하지 않는 의료원의 태도를 보며 앞으로의 교섭도 신의성실의 원칙하

에 임하리라 기대해본다. 그 시작점으로 의료원은 2016년 중노위에서 대표자가 직접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문화·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용역 발주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의료원의 노사 적폐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교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고충을 인정하는 노사신뢰를 통해 의료원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그 동안 노사 불신으로 멈춰있던 의료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의료원의 기습적인 정규직 채용 공고!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공고는 합의사항 이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난 3월 29일 직원게시판에 원내 직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노동조합과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채용 공고이다.

과거 진행했던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고 과정은 교섭 합의 후 노사가 실무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부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 이후 채용공고가 나갔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기 때문이다. 의료원이 이번 채용 공고를 합의 사항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까지도 노조와의 실무 합의를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휴일초과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노동조합이 밝혀낸 휴일초과수당의 비밀!

휴일초과수당? 이게 뭐예요?

지난 3월 25일, 한통의 문의전화가 왔다. ‘월급 명세서에 휴일 초과수당이란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지부가 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1일자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휴일에 8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것을 인정하고 휴일 초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휴일초과수당이란,

휴일(국경일, 주휴일)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거기에 휴일연장 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우리병원의 경우 휴일초과수당이란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휴일 근무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직원 편의를 위해 연장한 것이다?

우리지부는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

난 2016년 7월 6일에 진행한 2016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도 주휴일과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휴일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연장근무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 근무형태를 길게 잡은 것은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직원들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반인결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의료원, 결국 휴일초과수당 지급!

노동조합 투쟁의 결실!

우리지부는 노사 대화로는 풀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통상근무를 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휴일 연장근로 사례와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준비하는 동시에 의료원에 수차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투쟁에 대한 경고도 해왔다.

그러나 의료원은 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원들을 위해 한 것처럼 포장해

왔다.

그러나 계속된 노동조합의 투쟁에 의료원은 휴일 근무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번 휴일 초과수당의 지급은 조합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나긴 싸움 중 하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법위반 사항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고대병원은 휴일 초과 근로 수당 이외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

국정일에 연차나 생리휴가를 중복 처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못 미치는 220시간 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의료원은 휴일초과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기타 법 위반 사항들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부는 모든 법위반 사항들이 지적될 때까지 내부투쟁과 법적투쟁등을 이어갈 것이다.

세계보건의원날 기념, 의료적폐 청산! 보건의료인력 정책 요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는 4.7 세계 보건의원날을 맞이하여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을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해’로 선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5.9 조기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4.7 세계보건의원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담아 의료영리화와 의료적폐 청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자리 혁명·의료혁명의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고 말했다.